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8호 【루게 제24661호】 주제103(2014)년 9월 5일 (금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

오늘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당과 국가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이 개최되고 있다. 건국의 초창기에서 제1차 전국교육일군대회이 열렸던 때로부터 13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전국교육일군대회는 사회주의혁명전쟁이 합일제 다그치고 전민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성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혁명발전과 강성국가건설사업수행에서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사명과 역할을 깊이 통찰한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나라의 교육을 하루빨리 최첨단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전국의 교육일군들의 대회를 가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지난 기간 주체교육이 걸은 자랑스러운 로정을 증진하여 총화교육을 결집적으로 개진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토의하게 된다.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는 당의 주체적교육사상과 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구현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빛내이며 나라의 교육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적 계기로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은 언제나 중시되었던 혁명적 건설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어왔다. 선군조선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거창한 투쟁과 변혁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은 교육이 야말로 나라의 존망과 미래를 결정하는 판권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로부터 교육을 최단기간내에 새로운 발전의 궤도에 올려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이번에 열리는 전국교육일군대회에는 주체교육발전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에 더욱 빛내어나가며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사회주의 교육강국으로 전진시키려는 당의 심오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모든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교육일군들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이 가지는 역사적의의를 심장깊이 명심하고 당의 의도에 이번 대회를 우리의 교육발전에서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며 역사적인 2014년이 교육부문에서도 변이 일어나는 뜻깊은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새 세계 교육혁명에서 근본지침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교육사상과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후대교육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시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령도에 의하여 일찌기 항일의 불길속에서 주체교육의 고귀한 전통이 마련되고 해방 후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제도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나날에 동방에서 제일먼저 전민적인 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민적 11년제의무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시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같은 혁명인재육성의 불멸의 대장을 밝히시어 교육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으신 아버지수령님의 업적은 주체교육발전에서 길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시어 혁명령도의 전기간 수령님의 교육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오시었다. 그처럼 엄숙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같이 놓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결을 떠진다는 교육신행, 교육중시의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시며 무료교육, 무료교육이 중단없이 실시되도록 하신것이 위대한 장군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을 취해주시고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과 중등일반교육을 개선해나가도록 이끄는 령도의 자욱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삼지연군 무봉고급중학교와 막원군 사승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과 학교들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우리 나라를 배울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전변시켜주시는 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조국의 부강과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하여 이룩해놓으신 고귀한 업적이다.

모든 교육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교육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불멸의 령도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어나가려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어 새 세계 교육혁명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

교육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교육강국, 인제대국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오늘날 인제중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승리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보다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제도와 내용, 방법들을 탐구하고 도입하며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 지능화를 적극 다그치는 등 교육에서 남을 압도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교육의 발전수준이 인간의 문명수준이고 해당 나라의 국력과 발전의 높이이다.

지금 우리 당은 후대교육사업의 합법적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 세계교육발전의 추세에 맞게 나라의 교육전반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셨고있으며 전민적 12년제의무교육의 성과적실시를 위한 사업을 혁명하게 이끌어가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교육의 체계와 내용, 방법으로부터 교원양성과 교육조건보장에 이르기까지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전망이 펼쳐지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제강국화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고있다.

교육발전은 확고히 앞세워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당의 높은 뜻을 위대한 현실로 꽃피우려면 교육혁명의 주인공이며 교육발전의 당대자들인 교육일군들이 자기들이 지닌 중요한 사명감을 똑바로 인식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락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후대교육사업에서의 성과는 전적으로 그것을 담당할 교육자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교육자들이 숭고한 후대관과 미려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교육자적정신을 지니고 피라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새 세대들을 훌륭한 혁명인재로 키울 수 있다.

오늘 조국의 최후단으로부터 분계연선마을과 외진 산골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에 세워진 학교들에서 배울의 글소리가 높이 울리고 우리의 새 세대들은 앞날의 강성조선의 역군으로 여cke게 자라나고있다. 나 어린 학생들이 국제무대에서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고 청년대학생모두가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풀간으로 여cke게 자라나고있는데는 우리 교육일군들의 숨은 공로와 헌신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행복찬 나날이나 시련의 나날이나 오로지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목숨까지 희생하는 직업혁명가, 훌륭한 교육자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더없는 자랑이며 긍지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떠메고나갈 혁명의 계승자, 백두산대국의 기둥감들을 훌륭히 키워내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지니고있는 더없이 중대한 사명이며 본분이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믿음 하나만을 굳게 지켜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험거위도 간여위도 오로지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된 교육자, 총부한 지식과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지니고 실천모범으로 학생들을 혁명인재로 키우는 실력가형의 교육자들이 절호한 때이다. 우리 교육일군들은 나라의 장래운명을 책임진 교육자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기대가 얼마나 크며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임무가 얼마나 무겁고도 영예로운

가 하는것을 뼈와 살로 깊이 새겨야 한다. 교육사업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대사이다.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교육일군들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가 나라의 교육발전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심장깊이 새기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당의 의도에 맞게 새 세계 교육혁명의 불길용 세차게 지퍼올리며 교육사업전반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민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높이 향상시키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중등일반교육에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한다. 부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듯이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해야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워낼수 있고 전반적인 문화수준, 지식수준을 높일수 있다. 중등일반교육부문의 교육자들이 새 세계 교육혁명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것으로부터 새 세계 교육혁명을 일으키자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교육정책이다. 중등일반교육에서는 정치사상교육과 함께 일반기초과학교육, 기초기술교육에 큰 힘을 넣어 학생들이 사물현상을 원리적으로 깊이 파악하게 하며 그들에게 체계화된 기초지식, 쓸모있는 산지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그 질을 높여 배운 지식과 원리적기초를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혁명한 손길아래 전민적 12년제의무교육이 성과적으로 실시되는데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세계를 디디고 올라탈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을 비롯한 주요대학들을 과학교육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꾸려 세계적 인내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권위있고 능력있는 세계적수준의 인재를 많이 키워내는 것은 고등교육부문의 내선 기본과업이다.

모든 대학들이 최첨단들과의 대등한 목표를 내걸고 총력기해나서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교육과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려 교육사업을 개선하며 강성국가건설에 참담하게 이바지할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기술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연구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가며 교육과학과 교육실현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주체혁명영웅의 새로운 역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을 떠난 과학적두뇌는 혁명과 건설에 아무런 쓸모도 없다.

각급 대학과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백두의 혁명전승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정치사상교육을 심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사업의 공정과 계기들이 김정은대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으로 일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새 세계의 요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인제양성을 나무에 비유해 말하면 교육은 토양이고 교육조건은 거름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와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일신하여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다. 모든 대학, 학교들을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으로 요구에 맞게,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려야 한다. 교육기관들에서는 교수사업과 실험실습을 현대화, 정보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을 리용한 정보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실현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실험기구와 설비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관찰과 실험을 비롯한 실천실기교수를 진행하며 파견안에 반영된 견학실습, 전공실습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과학기술보급계획을 실현하며 새우고 활발히 운영하며 전격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향상시켜야 한다.

새 세계 교육혁명을 일으키는 최단기간내에 우리 교육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면 교육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교육부본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교육을 강성국가건설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당의 교육정책을 투철한 신념과 깨끗한 광심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교원들은 조국과 혁명의 미래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언제나 지장깊이 새기고 누가 보지않건, 알지아건건든 그 어떤 보수도 바람이 없이 후대교육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밀거물이 되고 부러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고단과 함께 한생을 묵묵히 바치는 선군시대공로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당의 교육정책을 충실히 실천해나갈수 있도록 애국적인정신을 발휘해나가야 한다.

교육혁명의 자질과 능력은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교원들은 꾸준히 학습하고 탐구하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지니고 훌륭한 교수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능숙한 기술로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키워 주고 깊은 지식을 심어주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원들속에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며 교육방법트론트, 교수경연, 경험토론회같은것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창신하고 우월한 교수방법을 널리 일반화해나가야 한다. 이 사업을 10월8일법교수자,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대렬을 늘리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학생들을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고상한 교육자적품모를 발휘하여 학생들이 학교와 학습에 정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에 교육중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교육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일으켜야 한다. 모두가 떨쳐나 나라의 교육발전을 떠밀어주어야 한다.

교육사업은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사회성원들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할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전망, 전국, 전민이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발전에 선차적힘을 넣으며 후대교육에 필요조건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의 아들딸들을 맡긴 학부형답게 교육사업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몰심함으로 도와나서야 한다.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분위기를 확고히 세우며 후대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원하여 전민적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데 맞게 교사건설과 부족되는 교실들을 갖추어주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여기에서 도, 시, 군인위원회들과 학교후원단체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교육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기차임이 교육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당의 교육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갈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또한 교원들은 교수교양사업을 당정책적요구와 교육학적원리에 맞게 바로해나가도록 책임적으로 지도하며 교원대렬을 잘 꾸려주어야 한다. 모범교육건설호쟁리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교육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 교육자들과 학생들의 위대한 승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세계를 향해 비약해가는 주체교육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장창하다. 위대한 당의 혁명한 령도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위력이 있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인 교육일군대우를 가지고있기에 우리의 주체교육은 반드시 세계의 가장 높은 명마루에 올라서고야말것이다.

모든 교육일군들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를 계기로 새 세계 교육혁명의 불길용 새 세계에 일으키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당의 웅대한 교육강국건설사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친애하는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와 전체 형제적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밑에 66년간 근면하고 영웅적인 형제적조선인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강력하고 현대적인 국방력과 과학기술을 가진 국가로 건설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숭고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온갖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지만 당신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끊임없이 강성부흥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훌륭한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에 부합되게 날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경사스러운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겠고 조국보위와 건설,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보다 큰 승리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쑤말리 싸이냐쑤

2014년 9월 2일 비엔티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3일 끼얹따씩 개오받던 주석 쑤말리 싸이냐쑤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쁘스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산과수농장에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산과수농장에 선물을 보내셨다. 지난 7월 철령마을에 세계공자의 청춘파원으로 일선된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헌신의 자욱을 새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살림집들에 입사한 농장의 농업원세대에 문화용품을 안겨주시었다. 이번이 과일농사에 리용할 현대적인 기계들을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4일 고산과수농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서용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영호내각사무장, 관계부본 일군들, 과수농장 일군들과 농업기술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김기남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에는 고산과수농장의 새 살림집들에 입사한 농장에 갖는 것이 없었는데 과수에서 세계적인 결실을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갈것을 바라는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농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고산밭이 거

지도록 과일대풍을 안아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선물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고산과수농장 지배인 최중수, 성북분장 초급당비서 신희수, 운수작업반 노동자 지음섭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그들은 과수에서 세계적인 결실을 이뤄내는데 야심을 가지고 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사회주의 무공도원으로 꾸리며 생산에서 집단적헌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과일생산의 현대화,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어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은정이 깃든 농기계를 적극 애호관리하고 그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과수작업의 종합적기회를 실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은대국주의를 지니고 조선속도당지음섭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그들은 과수에서 세계적인 결실을 이뤄내는데 야심을 가지고 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사회주의 무공도원으로 꾸리며 생산에서 집단적헌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과일생산의 현대화,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2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를 주제103(2014)년 9월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2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를 주제103(2014)년 9월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후대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김정일

따사로운 햇빛아래 만발하는 주체교육의 화원

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37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불멸의 교육대장이 발췌된 것'이 못 할 력사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의 교육부문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과와 경험들이 기록되었는가. 제 13차 전국교육인대회를 맞으며 온 나라에 넘치는 격정의 환호소리는 그대로 후대교육사업을 민족의 흥망성쇠, 조국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대사로서 여기고 지식인대부대를 키우시어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밑거름 마련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분출이며 정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중시, 교육중시 사상을 더 높이 받들어갈 불같은 신념과 의지의 폭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논하여왔다. 어떠한 사회주의혁명이든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한 정치가는 일찌기 없었다. 주체 66(1977)년 9월 5일, 아버지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 14차 전원회의에서 주체시대의 위대한 교육혁명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것은 우리 나라 교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는 획기적사건이었다. 교육은 사람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키우는 사업이라는 정식화로부터 정치사상교양과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 학교진도교육과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병진할데 대한 사상, 전반적무교육제도, 전반적무교육제도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강화할데 대한 사상...

사회주의교육학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밝힌 사회주의교육학의 리론과 방법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참다운 인간교육의 길을 명시한것이였다. 교육의 길을 명시한것이였다. 교육의 세계에서 착상된 교육강령이였다. 혁명의 길에 나선신 시기로부터 수십년간 교육문제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는가. 이 세상 누구도 지녀본적 없는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 교육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언제나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주시었다. 진명학교와 삼성학교, 삼광학교의 종소리와 아동단학교에서 울리던 배운의 갈소리 그리고 설현악이 휩쓰는 협한 산중에서 울리나오던 학습드론의 열면 목소리들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들려왔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혁명적교육전통은 새 조국건설시기 민주교육의 실시와 가결한 전회의 나날 전시교육의 우선적보장, 사회주의혁명시기 사회주의교육체계의 완비, 전민교육의 실시로 이어졌다. 진정한 아버지수령님은 가장 위대한 교육철학을 마련하시고 만년대대의 교육사업을 순간의 로선상학으로 다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끝까지 강화발전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정치가, 절세의 위인이시이다. 교육사상도 교육내용도 교육방법도 아버지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이런 신념과 의지로 주체교육의 명맥을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온전히 이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이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오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온 나라가 그마디에 교육과학연구기관들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두배산물, 외진 등대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학교들에 훌륭한 교육철비

들을 보내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그 손길로 우리 장군님께서는 교육혁명의 포성을 장엄히 울리고 혁명인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시었다. 고난과 시련이 겹쳐들던 주체 85(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오시고 오랜 시간 대학의 여러 곳을 돌이보시며 대학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뜨겁게 떠올랐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오시어 열정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당은 억만금도 아끼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있다고, 우리는 앞으로 더 지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후대사랑, 교육중시의 깊은 뜻을 안으시고 그이께서 찾으시였던 김책공업종합대학과 영웅강계장지산제 1중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에 이것은 위대한 선군정권의 발전자, 그것은 부강조국의 레일과 소총이 잇닿아있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레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신념과 락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불같이 사신 우리 장군님께서 후대교육사업에 쌓으신 성스러운 업적은 위대한 혁명유산으로 오늘도 천만민민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이 땅에 천만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것은 태양의 눈부신 빛과 열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품어 주어야 하는 주체교육의 화원은 계속하여 꽃피고 향기로운 향기를 내뿜고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1월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을 우리러며 천만민군이 더욱

확신한것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그이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라는것이였다. 조선소년단장령 616동경속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서 뜻깊은 연설도 하시고 평범한 교육자가정을 찾으시어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면 동식물들에 대한 상식과 등산지식같은것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정한 은정이 어려오고 경상유치원에 가면 몸소 여러가지 아동도사들을 가지고오시어 어린이들이 그림수작예작같은것을 많이 보아야 사물현상들을 분석판단하는 능력을 키울수 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가슴을 울린다. 어디 그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전국종합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어서 주신 이야기는 조국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니신 대한반도의 결출한 명도자를 모시고 사는 긍지와 자부심에 대하여 소리높이 전하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힘을 넣어야 할 분야도 많고있지만 후대교육사업을 그 무엇보다 바랄수 없고 미룰수 없는 중대한 사업으로 여기시고 전반적 무교육의 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혁명의 미래인 우리 새 세대들이 지역적, 계층적, 가정적, 성별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동감들로 여세를 자랑할수 있게 되었다.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로 주체교육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께서 계시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미래와 전도는 영원히 밝고 창창할것이며 불멸의 교육대강인 사회주의교육체제는 위대한 생활력을 더 높이 펼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뜻깊은 개학날에 주체 61(1972)년 9월 1일이였다. 뜻깊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대동문인 민학교(당시)를 찾으시었다. 입학하는 날은 매일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하시면서 신입생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정한 아버지의 손길로 그들의 책가방도 열어보시고 이름이며 나이, 부모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보시었다. 백두산에 자리잡은 무봉마을은 하늘아래 첫 동네로 불리었다. 하지만 무봉마을이 소문난것이 산골특유의 환경 때문만이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찾으신다고 수업참관까지 하신 학교가 있는것으로 하여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 되었다. 12년전 10월 8일 무봉중학교(당시)를 찾으시고 수업이 진행되고있는 중학반 3학년 10일 교실에 둘러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 력사과목교원의 수업을 주의

이날 교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학생교양과 학교건설, 교원들과 참고서보장, 지어 학생들에 대한 유용공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11년제에 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에 대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사회주의 교육

학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학생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이 혁명의 대를 잇게 하여나가기로 후대교육을 잘 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개학날 몸소 학교를 찾으시어 귀중한 시간을 후대들을 위해 바치신 아버지수령님, 그이 한없는 은정은 김정주소학교라는 이름과 더불어 오늘도 온 나라 학부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산골학교에서의 수업참관 교원들은 나라의 흥망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사업을 맡은 혁명가라는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모든 학생들을 지체와 자리를 같이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원들이 어느 대학을 졸업하였는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는가를 물어주시며 두배산촌의 후대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사랑속에 마련된 인민의 교육제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육은 후대들을 지체없이 준비시키는 계승자로서 키우는 중대한 사업이며 그것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명령도에 의하여 주체 22(1933)년부터 주체 23(1934)년까지 무교육의 거의 모든 마을들에 아동단학교들이 세워졌으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이 실시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학교들을 널리 설치하고 정연한 민주주의교육체제를 세운 기초에서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나라의 경제도태가 튼튼

하여지는데 따라 전반적의 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하시었다. 주체 45(1956)년 전반적 초등무교육제가 실시된데 이어 2년후에는 전반적중등무교육제가 실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에 따라 주체 55(1966)년 1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 6차회의에서는 《전반적 9년제기술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의 법령을 채택하고 9년제기술무교육의 실시를 세상에 선포하였다. 주체 64(1975)년 9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 력사상 처음으로 전반적 11년제의 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었다. 전반적 11년제의 무교육의 완전한 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교육사상의 빛나는 승리였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공고

발전과 문화혁명수행에서 획기적전진을 가져온 력사적사건이였다. 주체 101(2012)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6차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의 결정체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함의는 과시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혁명명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제 인민이 모두 배우고있으며 락소, 유치원, 예육원, 육아원들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앞날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자라고 있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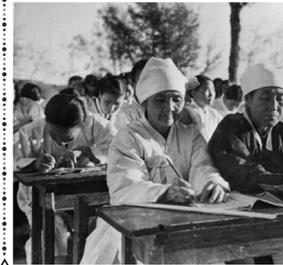
추억깊은 력사의 화폭들

배운의 나라, 교육의 나라, 이에 대하여 생각할때면 주체교육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던지라, 이것이 해방후 우리 나라에 펼쳐진 현실이였다. 두번째 사진은 인민의 첫 대학,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학생들의 역군들로 준비해가는 학생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여준다. 통남산에 역세게 뿌리를 박고 굳건히 솟아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웅지를 바라볼수록 해방후 그처럼 복잡다단한 속에서도

은 놀라운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는가. 동방에서 처음으로 문명을 완결한 없던 문명인 나라, 이것이 해방후 우리 나라에 펼쳐진 현실이였다. 두번째 사진은 인민의 첫 대학,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학생들의 역군들로 준비해가는 학생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여준다. 통남산에 역세게 뿌리를 박고 굳건히 솟아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웅지를 바라볼수록 해방후 그처럼 복잡다단한 속에서도

종합대학을 창설할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몸소 개교식장에까지 나오시어 민주주의적국가건설에 헌신할 인재가 되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웠다. 농민들이 바친 귀중한 애국미로 대학의 새 교사를 일떠세우도록 하고서 위촉장까지 보내시어 학자들을 대학교원으로 불러주시며 김일성종합대학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뜻을 전해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 전하며 김일성종합대학은 주체

교육의 최고전당으로 오늘도 그 이름 빛나고있다.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데 관한 내각결정 제 18호를 받아안은 학생들의 기쁨넘친 모습이 세번째 사진 속에 반영되어있다. 주체 48(1959)년, 그때라고 하여 결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반적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어 학교전교육으로부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기치

온 나라에 문화혁명 66 불꽃을 자랑한 로적적성과 빛나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를 발표하신 66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97(2008)년 9월 5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우리 공화국의 높은 존엄과 권위, 그 불패의 힘의 원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기념비적문헌으로서 선군조선의 빛나는 기치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물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세기적변혁으로 수놓아온 부강조국건설의 년대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경애하는 우리 공화국의 명도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불라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대정치과동 속에서 두드러져 대성취하며 오늘도 래일도 자기 발전의 길, 주체의 한길에 따라 승승장구해나갈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과 수령의 혁명명령도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으며 우리 공화국의 60년력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구현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이며 자주적인 성격과 불패의 위력,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로작에는 부강조국건설

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당의 빛나는 선군명도사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으며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이 우리 혁명의 력사적전승과 오늘들의 긍지높은 현실을 통하여 뚜렷이 입증되어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로작의 구절구절을 새겨보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도자를 모시고 살며 투쟁해나가는를 심장깊이 절감하고있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갈 신념과 락관을 넘쳐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명령도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은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고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치높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끝마르나아갈데 대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락관한 지략과 불멸의 선군명도사로서 수령의 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로 전을 승리로 이끌고계시는분인 우리의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성에 의하여 제국주의반동들의 끊임없는 제대압박속에서도 영웅조선의 혁명의 력사와 전통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되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이 활력어 넘쳐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은 천만민군에게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불패의 사회

주의강국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공화국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의 명도명령에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기에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게 되었다고 강조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고 자주의 사상이며 인민의 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길은 과학적으로 밝혀지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가자고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미 일두 제국주의영력들을 타도하고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낼수 있었으며 단계적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이 땅위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특히 지난 세기 90년대에 반제반미대결전선에서 이룩된 력사적승리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위대한 승리였다. 우리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겹쌓였던 그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고 끊임없는 강행군을 결의하시며 선군사상의 필승 불패성을 힘있게 확증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사회주의전위들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다져지게 되었다.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기초한 선군혁명사상과 리론을 정립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킴으로써 21세기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전략적대안을 마련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천만민군이 빛날 력사적공적이다. 참다운 지도사상을 가지고있는 차라는 그 어떤 시련과 파동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위악을 다하고있지만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앞길을 밝혀주고있기에 우리 공화국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우리 공화국은 수령, 당, 대중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한 불패의 강국이다. 단결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수호와 부강번영을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의 일심단결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힘품으로 지니는 아버지수령님과 수령님의 사상과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우리 당의 명도에 의하여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 확고히 지배하게 되었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물려주시던 귀중한 혁명유산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정만경으로 굳게

리익은 당의 로선과 정책작성의 출발기초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서 빛나고있는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열화같은 사랑은 이 땅위에 수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위대한 단결의 새 역사를 펼쳐놓았다. 숭고한 민애와 의리로 굳게 뭉쳐진 수령, 당, 대중의 위대한 혼연일체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이 막아나서고 거창한 혁명과업들이 제기되었지만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모르고 오직 끝마르 힘차게 전진하여오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에 우리의 일심단결은 그 중심의 확고부동성과 사상과 행동의 유일성과 통일성, 도덕의리의 숭고성이 확고히 보장된 불패의 단결로 더욱 공고발전되게 되었다. 끊임없는 선군명도의 길에서 천만민군이 투철한 혁명적수평관을 지니고 총정과 의리로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며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에게 열과 정을 주고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안겨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명령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위업에 총일하신 선군혁명명도의 력사적 기치이며 불패의 위력을 떨치며 승리와 영광의 길을 열어왔다고 강조하시었다. 선군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 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첫 앞날을 내다보시고 선군의 시련을 열어놓으시였으며 후대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에 총일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명도로 력사의 존엄인 시련과 풍파를 헤쳐 우리 혁명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무적의 혁명무력과 강력한 국방명예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자랑떨칠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정만경으로 굳게

지도강행군으로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총대로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어나가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의 력사는 오늘도 즐거이차게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명도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백두산절세위인군으로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국방공급과 군민대결의 위력어 천백배로 다져지고있으며 인민군대의 선도자적역할에 의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진군속도가 창조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명도성에 우리 조국의 인민들은 끝없이 변명할수 없는 창창한 레일을 내다보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는 천만민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도자를 모시고 불패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력사를 창조하며 백전백승을 펼치는 크나큰 민족적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무적의 혁명무력과 강력한 국방명예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자랑떨칠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정만경으로 굳게

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경제사업도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중3대 혁명붉은기 회창군기초식품

크지 않은 산골촌의 지방산업공장이 온 나라에 소문을 내고있다. 회창군기초식품공장은 50정도의 원료 기지를 그르히 갖추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원료력정을 모르는 단위, 여러 가지 기초식품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여 군내주민들에게 달마다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단위가 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여 앞선 단위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이 공장을 돌아본 많은 단위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정책을 하나부터 열까지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한 공장,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공장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있다. 하디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9년전

까지만도 계속되는 원료, 자체부족과 뒤떨어진 설비상태로 하여 거의 주저앉았었다. 회창군이 오늘과 같이 전진되기까지는 사람파의 사업을 기본요소로 틀어쥐고 경제사업을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는 지혜로운 김성근동무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 경제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초급일군이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것을 기본요소로 틀어쥐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사상의 위력으로 생산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적극 발양시킬 줄 아는 조직적 수완과 능력을 갖추고 당정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가는 김성근동무의 사업방법은 각지 경제일꾼들에게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주고있다. 회창군 기초식품공장을 맡겼다. 우리가 생산한 원료로 군민들의 기초식품 문제를 완전히 풀었다는 총정의 보고를 하루 빨리 당에 드리지! 그의 결심을 군당위원회와 공장당조직에서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회창에서 지배인이 잘한것은 이신작직이다. 공사에 필요한 자체들을 마련하기 위해 때씩을 건너며 뛰어나는 속에서도 생산 건물개건공사의 앞장에 섰다. 설비제작작업장에 들어서서는 기술자들과 설계도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새로운 착상의 실마리를 펴겨주기도 하였다. 월할이면 마이크를 들고 종업원들에게 노해도 불러주었고 머지 않아 펼쳐질 공장의 배일을 그려주며 힘과 용기도 안겨주곤 하였다. 일꾼의 이신작직, 그것은 몇백배의 말이나 호소보다 더 위력한 선동이었고 당정책관철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선장이었다. 공장의 청년들은 스스로 돌격대를 꾸고 밤낮이 따로없는 결사전을 벌였다.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달려나와 야근할 때 밤을 바쳐가는 전투장은 불도나기마냥 끓어올랐다. 지배인의 이신작직에서 본받을 점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달려나갈 때 못배할 일이 없다는 담력과 배짱을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었다. 원료기재간전투파장이 바로 그러하다. 사실 지방 둘러봐도 산골민 회창군에서 부침을 찾아낸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다. 있다면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누구의 손길도 미치지 않는 험한 산중의 척박한 빈 땅뿐이었다. 지배인이 그려낸 땅을 여러곳에서 찾아내고 원료기재를 조달할 길을 하자 많은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그 지대로 말하면 비탈막이 심한데다가 산꼭대기에는 4월말까지 눈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여로부터 부지런한 농사꾼에게는 나

공장 지배인 김성근동무의 사업 경험

쁜 땅이 없다고 했습니다. 땅따발로 우는 소리만 하며 세월을 보낸다면 우리 공장에서는 언제 가도 당정책을 관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달려볼 때 불가능이란 없다는 진리가 깰들어있다. 김성근동무가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계기가 있다. 공장에서 자체로 제작한 간장, 된장자출장치치는 시운전에서 단번성공하였다. 우리 공장 기술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증거인 말들이 종업원들 속에서 오갔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수일에 의존하고있는 전통 발브가 자주 고장이 나서 자동출장치를 가동시킬수 없었던것이다. 그때마다 전통 발브를 구입해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기쁨은 실망으로 바뀌고 이거야말로 밑바닥에 돌출이 아니라 하는 맥빠진 소리가 울려나왔다. 이 말에 지배인은 정신을 번쩍 차렸다. (그렇다. 남에 대한 의존심이 커지면 자립심이 없어지면 나중에는 기술의 노예가 되고만다.)

규격이 각이한 병들을 써야 하는 지방산업공장의 실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아님수 없었다. 실패가 계속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다시 나왔지만 지배인의 결심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좀 해보다가 잘 안된다고 쉽게 허버터서는 언제 가도 우리의것을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자라는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과학자들이 만든 창조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기계를 우리 식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 기술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마음속으로 먼저 들어가자

기업관리를 책임진 지배인들의 일과는 바쁘다. 원료, 자체구입 등을 위해 오가야 할 길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김성근동무의 하루일과는 사무실이 아니라 생산현장을 먼저 찾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공장의 큰결속으로 이어졌다. 몇몇사이에서 놀라운 전진이 이루어졌다. 소문을 듣고 공장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지베인의 손을 놓지 못하며 정말 수고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할 때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종업원들이 한 일입니다.》

국가적인 표창사업이 여러차례 있을 때에도 그는 종업원들을 먼저 내세우기 위해 애썼다. 그들의 가슴마다에 빛나는 훈장, 메달을 바라보며 더없는 긍지를 느끼고 거기에 큰 힘을 얻고 더 힘껏 앞장을 메는 일꾼의 모습은 얼마나 훌륭한가. 앞장은 자기가, 영에는 종업원들에게! 한개 단위를 이끄는 일꾼이라면 높은 실력과 실천력을 지니는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기 종업원들의 수고를 값없이 헤아릴줄 아는 일꾼의 품성은 대조를 만나야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도 단호하게 버티는 열매까지의 호소나 높은 요구성을 대신한다.

새로 개간한 원료기지에 첫 씨앗을 뿌린 채로 정교당 1.5을 기록했던 강병이수 화력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 올해는 정교당 7이상의 소출을 확고히 내다보고있으며 좋은 2이상수 거두어들일것으로 예견하고있다. 척박한 땅이 기름진 속도로 전변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쉽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실지 와서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염두도 낼수 없었던 일들이 몇해사이에 하나하나 완비하게 실현되고있는 이 공장의 실례를 통해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매개 단위의 비약발달적인 지름길은 당정책관철에 있으며 그 당당자인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시키는 요인은 영을 메고 큰 결속을 내짚는 일꾼의 기수적인 역할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의 지도력에 지배인은 간장, 된장 자동출장치를 장인, 제작한 공장의 기술자들과 다시 마주앉았다. 전통발브를 자체로 만들어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고 성공의 열매가 주렁졌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지금도 병세척 및 병뚜껑을 제작, 도입한 때의 효능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의우곤 한다. 국가과학원 연구사들의 실례를 현실에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처음 논의가 분분했다. 생산한 설계를 믿고 제작에 접어들었다 실례하는 날엔 아까운 자금만 낭비한다는것이였다. 손쉽게 남의것을 구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지배인은 명백하게 선을 세웠다. 《파괴가 없다고 우리의 설계를 외면하면서 남의것부터 찾는 그자체가 기술신비의이라고 패배주의요. 설사 열매만 실례한다고 해도 우리의 과학자들이 내놓은 설계를 무조건 끝까지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 일을 다름아닌 우리 공장이 해야 합니다.》

규격이 각이한 병들을 써야 하는 지방산업공장의 실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아님수 없었다. 실패가 계속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다시 나왔지만 지배인의 결심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좀 해보다가 잘 안된다고 쉽게 허버터서는 언제 가도 우리의것을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자라는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과학자들이 만든 창조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기계를 우리 식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 기술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김성근동무가 9년세월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어나가는 것이다. 처음 배치되어 공장을 돌아보는 그의 마음은 부지런했다. 숙종어가는 설비들, 령 비다싶이 한 원료, 자체재고들, 달마다 미달하고있는 생산 계획, 좋지 못한 출근률... 무엇보다 어떻게 할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원료, 자체구입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출근하지 못한 종업원은 없습니까?》 생산보다 건강을 먼저 묻는 목소리에서 종업원들은 아버지의 정과 같은 친근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한다.

고 백

작사 김정덕
작곡 황진영

사색적으로 (♩=70)

1. 그 누가 그 누가 불려서 그 품에 안겨
 심장이 심장이 불려서 꿈에 도안기네
 인품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2. 그 누가 그 누가 떠밀어 이 길에 가는가
 심장이 심장이 가리켜 내 찾아가는 길
 그 열정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3.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그이의 곁에서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할 심장의 고백
 그 평도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세월이야 가보라지

작사 김형찬
작곡 안정호

흥취나게 (♩=110)

1. 봄 시 절 은 멀 리 훌 러
 우리인 생 가 - 을 인 데
 겁 은 - 머 리 희 었 - 어 - 도
 그 시절 이 푸 - 르 르 - 오
 로 동 당 의 은 덕 - 으 로
 황 혼 기 도 청 - 춘 이 니
 세 월 - 이 야 - 가 - 보 라 지
 우 리 마 음 늙 - 을 소 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가 만사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얼마전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며 새로 창작한 노래 《철령아래 사파바다》가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때에 또다시 편이여 울려 퍼진 새 노래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끝없는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음악예술부문에서는 시대정신이 백박지는 사상예술성이 높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곡을 많이 창작하며 기백있고 역동하는 음악예술활동으로 당의 음악정치를 앞장서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흥하는 시대가 낳은 멋쟁이 노래들

이번 음악회무대에는 《철령아래 사파바다》, 《바다 만풍가》, 《근위부대자랑가》, 《승리는 내를 이어》를 비롯하여 최근 모란봉악단에서 새로 창작형상한 여러편의 새 작품들이 많이 울렸다.

모든 작품들이 그러하였지만 특히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고백》, 《세월이야 가보라지》와 같은 작품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 변명하는 내 조국의 현실을 생동하게 형상한 새 노래들이었으므로 하여 신작음악회의 의미를 더욱 두

드러지게 부각시켰으며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노래 《고백》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혁명의 한길에 뜻이 이어가려는 천만 군민의 심장의 목소리를 운군하면서 서정적 절은 선율로 절절하게 형성하고있으며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는 이 세상 들도 없는 당부, 선군복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의 모습을 향단에 넘친 흥취나 는 민요가락에 담아 잘 보여주었다.

약동하고 비약하는 시대의 요구를 속속들이 반영하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신동히도 맞는 새 노래들을 훌륭히 창작해내는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이건 투적인 창조기풍에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음악회를 본 관람자들은 역시 새 노래가 나와야 사람들이 기뻐하고 우리의 선율, 우리의 장단이 마음에 꼭 들어맞는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시대가 흥하면 노래소리가 높기 마련이다. 인민이 기다리는 새 노래, 인민의 감정에 맞는 새 명곡들이 더 많이 울려 퍼지는 속에 우리의 생활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며 내 조국은 날마다 흥해가는 것이다.

본사기자

2. 첫사랑을 속삭이던 버들방천 어드메나
 주름깊은 얼굴에도 그 버들이 싱싱하오
 선군세상 복을 누려 구실환갑 노래하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3.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성길엔 행복년월 우리 생활
 우리 당을 받들어서 한성토록 젊으리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와 김일성 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로씨야련방 평의회 1부의 장 일행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4일 일행의 로씨야련방 평의회 1부의 장과 일행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셨다.

1부의 장은 방문록에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께서는 로씨야 연방에 커다란 기여를 하셨다고 썼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에 즈음하여 4일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의 통일변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으며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4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우리 나라의 민음식

한 음악예술인재양성기로서 주체음악교육의 최고전당으로 훌륭히 전변된 대학의 연혁소개실과 강당들, 음악당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비행 레샤코

방글라데슈에 가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출발

단기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장준상 보건성 부

상과 스페인 파울 조스트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전송하였다.

주국방문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시대의 명작들로 선군예술의 황홀경을 펼친 공연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대절찬속에 진행

사상전의 장엄한 포성이 천만 심장을 격동시키며 혁명의 진군 속도를 비상히 높여주는 속에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모란봉악단이 우리 식의 새로운 명곡, 명작들로 또다시 환희로운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우리 당의 제일나팔수, 문학 예술혁명의 기관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사상으로 일관되고 당정책을 위시인으로 기백넘치는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형상하여 선군 음악예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만하게 하였다.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가 3일과 4일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군대와 사회의 예술부문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 출판도, 예술 교육부문의 기자, 편집진들,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음악회장소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생활의 김동무로 더욱 친근해진 모란봉악단의 진할 줄 모르는 생기와 약동, 열정넘친 모습을 보여 준 관람자들의 열열과 광만이 없지 않았다.

인민의 명도자를 우러러따르는 전인민적 사상감정의 불출연양 녀성3중창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으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녀성3중창 《그리움의 하얀 폭배》, 녀성독창과 방창 《내 심장의 목소리》, 《고백》, 경음악편곡 《빛나는 조국》, 《인민공화국선포의 노

대한 열화같은 흥묘의 정이 펼친 아름다운 음악세계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새 건설이 꽃피나 바다향기, 과일향기 풍기는 사회주의대가정에 나날이 커만 가는 행복을 노래한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철령아래 사파바다》, 《세월이야 가보라지》로 음악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위대한 시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인민의 기쁨을 담은 흥취나는 민요들은 로동당의 은덕속에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의 선경을 한폭

관람자들은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결사판결의 정신,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적극 따라배워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 명도를 총직하게 받들어 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최후승리의 진군길에 당정책을 결사옹위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가하는 명작포성을 높이 올리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의 사상판결전, 당정책옹위전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는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20세기 역사의 흐름을 자주의 한길로 이끄신 절세의 위인

국제정세는 복잡다단하지만 격변하는 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자주의 대화가 도도히 굽어치는 오늘의 현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엄과 결코 매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진보적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주를 혁명의 원리로, 혁명방식으로 정립하고 자주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위대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자주는 역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이며 평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기초이라는것을 확증하시었으며 20세기 역사의 흐름을 자주의 길로 이끄시어 인민대중이 지배와 종속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해나가는 자주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었다.》

현정세 자주를 혁명적진로로 간직하시고 구원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외국인사를 만나주시고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벌려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주제66(1977)년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7년 리가의 호세 프란시스코 아길라르 불기렐리를 친히 만나주시었다.

그로 말하면 이전에 사회당 총비서로서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던 전적으로서 사임하였다. 갈길 따라 암모니아화한 시가 이어 사살된대 이어 다른 도시에서 경찰이 흑인청년을 또 쓰아죽이는 류형사건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자주사상도 무장하면 아무리 강한 적과 맞서도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기고 자기 나라 문제를 제법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가르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강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은 바로 제힘을 믿고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주체적방법으로 싸웠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받아들인 아길라르는 주체의 위력, 자력갱생의 위력을 새롭게 절감하였다.

그는 일부 적지 않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원조를 구걸하고있는데 그것은 결국 제힘을 믿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견해를 긍정해주시면서 물론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을수 있지만 제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한다면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울수 있다. 어디까지나 생각은 자기 인민의 운명을 등한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제힘에 의거한 생각은 하지 않고 전적으로 남의 힘에 의존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와는 맞지 않는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인 인사들을 만나실 때마다 우리 나라가 짧은 기간에 세기적변혁을 이룩할수 있는것은 바로 남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믿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인제인가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력갱생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우리 나라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힘과 기술에 의거해서 혁명과 건설을 벌려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말씀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조선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대통령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능한 농업기술대표단을 파견해주시어 그 나라 인민들이 자력갱생하는데 방조를 주도해 하시었다.

200m. mile행해선에 대한 주장은 당시들이 먼저 내놓은것이며 자주의 기발을 든것이다. 이것은 아주 정당한 정책이다. 당신들은 미국배가 해안가까지 와서 고기를 잡으면 나로 하여 벌금을 받는다하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용감하고 대담한 행동이며 전세계가 다 본받을 만 한 일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필담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있으며 높이 평가하고있다. 당신들이 자주성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있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온 세계가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오늘 하나의 사상조류로 되고있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본보기의 나라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미국 《뉴욕 타임스》지 기자도 인정하였다.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주성이 제일 강한 나라라고 하였으며 우리가 반미사상도 매우 용감하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있다고 하였다고 회고하시었다.

인류자주위업이 역사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1980년대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과정은 편이여 여러 동유럽나라들에 확대되어 1990년대초에 이르러서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혁명을 하고 수십년동안 존재해온 소련이 해체되어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제국주의자들은 마치도 저들이 승

리한듯이 묘사하며 오만방자하게 놀아냈다.

파연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가 모순에 빠져있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기만하면 된다. 전진도상에 장애에 부딪힌다고 하여 역사가 되돌아서 거꾸로 흐르는 법은 없다. 역사는 결국 자주, 평화의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이며 인민들의 자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라는 철의 선언을 하시었다.

주제 79(1990)년 10월 5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주사회로동당대표단을 친히 만나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절경적상에서 지금 사회주의운동안에 별의별 일이다 일어나고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자주 부르시던 《적기》의 구절을 되뇌이시며 비겁한자들이 간다 해도 혁명하는 사람들은 굳게 단호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류자주위업에 대한 이렇듯 투철한 신념과 의지는 그대로 반제자주위업이 승리의 한길로 굳건히 나아가갈수 있게 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오늘 자주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의 뚜렷한 상징으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청중하는 시대로 빛나고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불멸불후의 로고와 정력적인 활동으로 자주시대의 대 역사를 안아오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만대에 길이 빛날 세계사적업적을 수놓으신 전설적위인, 인류의 영재가 되셨다.

여러 나라 신문들 글 게재

선군절에 즈음하여 인디아, 인도네시아신문들이 글을 게재하였다.

인디아신문 《인디아 앤드 월드 이벤트》는 《영원한 국방위업》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 그이 영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다.

그이께서는 국방위원회 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기구를 확립하고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끊임없이 강성번영해나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었다.

지난세기말 김일성주석을 뜻밖에 잃은 사회주의 조선은 가장 억눌린 사회를 겪지 않았던 안락국이었다.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봉파를 기화로 제국주의련합력의 반사회주의공세가 조선에 집중되었으며 자연재해가 연이어 일어났다.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을 책임지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력강화에 모든 힘을 집중하시어 그로 인하여 전방위적군력을 강화해나갔으며 이끄셨다.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기구가 확립되어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진 현실 특히 세계의 판도를 집중적으로 지배하는 힘에 대항하여 전방위적군력강화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치사상적,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방사능, 핵보유국으로 전면시킴시대에 대하여 충성하였다.

한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의 불패의 군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전면시킴시었다. 선군정치를 이어가시어 인민군대물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군, 필승불패의 전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시었다. 국방공업발전이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어 조선의 자립적국방공업을 최첨단과학기술의 토대에 확고히 올려 세우시었다.

또한 민간부문을 강화하시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굳건히 다지시었다.

미국의 무모한 핵위협에 대처하여 조선은 백억달러까지 갖추었다.

하여 미국이 원자탄으로 조선에 위협공갈하던 시대에 영원히 끝났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하게 확보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적필승의 강국으로, 우리 공화국을 정치사상적,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방사능, 핵보유국으로 전면시킴시대에 대하여 충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적필승의 강국으로, 우리 공화국을 정치사상적,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방사능, 핵보유국으로 전면시킴시대에 대하여 충성하였다.

미국의 인종차별정책을 규탄하여

빼루 단체 성명 발표

배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가 최근 미국의 인종차별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얼마전 미국의 미주리주 피구시에서 흑인청년들이 백인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된대 이어 다른 도시에서 경찰이 흑인청년을 또 쓰아죽이는 류형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정하는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차별되는 자유란 백인들에게 강요되는 죽음의 자유임을 보여주고있다.

인종과 피부색때문에 백인들에게 죽음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미국흑인들의 비참한 운명을 통해 세계는 미국의 인권실태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잘 알게 되었다.

미국이아말로 21세기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여 할 인권유린의 주범이다.

미국은 《인권재판관》행세를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시비하기 전에 제 집안의 심각한 인권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할것이다.

그는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군력을 다지는것은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그의 안전을 수호하고 경제와 사회분야에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로씨는 자기의 핵억제력과 무력을 보다 집약적이고 보다 효율적인것으로 강화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는 그 어떤 침략도 물리칠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대통령 핵잠재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립장 천명

로씨야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최근 전국청년단에서 연설에서 나라의 핵잠재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군력을 다지는것은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그의 안전을 수호하고 경제와 사회분야에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로씨는 자기의 핵억제력과 무력을 보다 집약적이고 보다 효율적인것으로 강화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는 그 어떤 침략도 물리칠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군력을 다지는것은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그의 안전을 수호하고 경제와 사회분야에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로씨는 자기의 핵억제력과 무력을 보다 집약적이고 보다 효율적인것으로 강화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는 그 어떤 침략도 물리칠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라의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

남아프리카부대통령이 8월 28일 나라의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데서 재정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경제의 안정적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을 계속 견지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로부터의 부정적영향을 막고 나라의 경제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열외는 국내의 잠재력을 동원하는데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최근에 발표된 한 자료에 의하면 인디아에서 나이지리아를 다룬 2명의 입국자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1명은 사망하였다.

또한 보건 당국자들은 이 발발이 진행되고있다 한다.

아프리카를 휩쓸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아시아로 전파되고 있다. 국지적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쿠바에서 최근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월 30일 이 나라 정부는 세

적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을 계속 견지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로부터의 부정적영향을 막고 나라의 경제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열외는 국내의 잠재력을 동원하는데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최근에 발표된 한 자료에 의하면 인디아에서 나이지리아를 다룬 2명의 입국자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1명은 사망하였다.

또한 보건 당국자들은 이 발발이 진행되고있다 한다.

아프리카를 휩쓸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아시아로 전파되고 있다. 국지적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쿠바에서 최근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월 30일 이 나라 정부는 세

경제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발전도상나라들 협조

스리랑카와 세이셸이 8월 28일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무역위원회 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해운업분야에서 쌍무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갈데 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경 제 장 성

필리핀에서 올해 2.4분기에 경제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6.4% 성장하였다.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제조업부문 생산 증대

싱가포르에서 7월에 제조업 생산량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 늘어났다.

이 나라 경제발전위원회가 이에 대해 밝혔다.

하부구조개선 노력

케냐에서 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시키고있다.

나라에서는 몸바사항 확장공사물 마그지는 한편 1만km에 달하는 도로와 철도를 새로 건설할것을 예정하고있다.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마약 반대 투쟁

케냐에서 8월 29일 몸바사항 앞바다에서 마약약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370여kg의 헤로인을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심각한 실업형편

8월 29일 유럽동맹통계국은 7월에 포르투갈에서 체무위기의 후과로 실업률이 14%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인제를 일으킨 천하를 얻는다. 이것은 지식경제시대 오늘날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공통적인 경향에 되고있다.

현시국력경쟁은 곧 지식경쟁, 인재경쟁이다. 인재가 많으면 작은 나라도 강한 국력을 가질수 있지만 인재가 없으면 평대한 명도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도 빛을 낼수 없고 선진시대의 기술투출을 밀려나수 있다.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양성하고 확보하는데 모를 막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국가발전전략을 세우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인재야말》, 《인재고갈》만을 앞세우면서 앉아서 우는소리만 하면 발전도상나라들이 국제경쟁에서 이마지할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있는것이 주목되고있다.

훌륭한 교육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기마련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대학생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대학의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생수를 크게 늘리고 있다. 국제고등교육기관의 한 책임자는 매개 나라가 동맹국의 실적수준을 개선하고 고등기술인재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을 적극 활용하여 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진경제국대에 있어서 대학은 아주 중요하다.

부당한 압력에 강경히 대응할것이라고 언급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8월 30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제재조치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미제무성이 이란의 은행들과 회사들을 새로운 제재조치를 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사화안전사업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

케냐대통령 우후루 케냐타가 8월 30일 한 연설에서 사회안전사업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판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안전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으며 특히 해변가를 비롯한 관광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 전 시 위

영국 웨일즈의 뉴포트에서 8월 30일 반전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1000명의 각계층 중년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나토의 확대를 반대

미군전투기 추락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8월 27일 미공군소속 F-15C 이글 전투기가 비행도중 추락하였다.

그 나라들은 대학안에 연구기관을 구축하고 지식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최근 케냐대통령은 대학건설과공공에서 연설하면서 고등교육발전이 힘을 낼수있고 인재육성사업에 강화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대학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제구실을 할수 있도록 대학교육내용을 발전시키고있다. 대학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실적을 내는가 못 내는 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유능교육과학기술자구는 지난날 양기와 시범을 기본으로 하는 틀이었는데, 뼈대주는 방법의 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지능교육으로 전환시킬것을 호소하였다.

나이지리아정부는 나라의 교육목표실현을 위해 교원들을 발송시켜 그들이 후대들에게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주고 애국주의를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안에 연구기관을 구축하고 지식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최근 케냐대통령은 대학건설과공공에서 연설하면서 고등교육발전이 힘을 낼수있고 인재육성사업에 강화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대학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제구실을 할수 있도록 대학교육내용을 발전시키고있다. 대학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실적을 내는가 못 내는 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유능교육과학기술자구는 지난날 양기와 시범을 기본으로 하는 틀이었는데, 뼈대주는 방법의 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지능교육으로 전환시킬것을 호소하였다.

나이지리아정부는 나라의 교육목표실현을 위해 교원들을 발송시켜 그들이 후대들에게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주고 애국주의를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자 인 피 해

가 물

8월 31일현재 중국의 로양성적으로 35만 8000명이 먹는 물부족을 겪고있으며 농업과 축산업부족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었다.

가물에 의한 총피해자수는 586만명에 달하고 있다 한다.

8월 27일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시당국은 저수지에 남아있는 물량이 17%도 되지 않아 주민 1400만명이 물부족난에 직면하였다고 밝혔다.

가물에 의한 총피해자수는 586만명에 달하고 있다 한다.

8월 27일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시당국은 저수지에 남아있는 물량이 17%도 되지 않아 주민 1400만명이 물부족난에 직면하였다고 밝혔다.

가물에 의한 총피해자수는 586만명에 달하고 있다 한다.

8월 27일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시당국은 저수지에 남아있는 물량이 17%도 되지 않아 주민 1400만명이 물부족난에 직면하였다고 밝혔다.

활 발 해 지 는 인 재 육 성 사 업

그 나라들은 대학안에 연구기관을 구축하고 지식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최근 케냐대통령은 대학건설과공공에서 연설하면서 고등교육발전이 힘을 낼수있고 인재육성사업에 강화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대학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제구실을 할수 있도록 대학교육내용을 발전시키고있다. 대학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실적을 내는가 못 내는 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유능교육과학기술자구는 지난날 양기와 시범을 기본으로 하는 틀이었는데, 뼈대주는 방법의 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지능교육으로 전환시킬것을 호소하였다.

나이지리아정부는 나라의 교육목표실현을 위해 교원들을 발송시켜 그들이 후대들에게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주고 애국주의를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프랑스에서 생활조건보장을 요구하며 시위

불 속에서 오래 동안 작업 할수 있는 로보트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불속에서 오랜 시간 작업할수 있는 로보트를 개발하였다.

2000m깊이의 바다속에서 여러대의 활기기로 주위환경을 탐색하고 인식할수 있는 화상정리기술이 도입된 이 로보트는 차원탐사나 생태조사에 리용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축전지가 거의 방전되면 바다 밑에 설치한 전기공급장치에 접근하여 자동적으로 충전되어 된다. 따라서 선박으로 불을 들이켠 채를 통해 전기공급이 필요한 물체를 탐색하는 범위를 이동할수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프랑스에서 생활조건보장을 요구하며 시위

프랑스에서 생활조건보장을 요구하며 시위